

#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의 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 지 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들이 과학연구사업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과학 정보사업을 개선강화하지 않고서는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 시대이며 오늘 세계적으로 정보자원과 그 기술이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노는 역할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것은 정보의 수집, 분류, 정리, 보관, 검색 등을 다루는 도서관정보학의 과학화, 리론화수준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여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도서관정보학의 과학화, 리론화수준은 이 부문 학술용어들의 정식화와 표기를 비롯한 표준화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한다는것은 해당 학문분야에서 리용되는 학술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정립하며 유일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한다는것은 우선 학술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해당 학문분야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리용되고있는 학술용어들은 물론 유일적으로 표기되어 쓰이고있는 학술용어들도 모두 장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학문분야에서 리용되고있는 학술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것은 학술용어들을 과학적으로 옹계 정립하고 유일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표준화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한다는것은 또한 장악된 학술용어들을 과학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술용어들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것으로써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있는 학술용어들은 물론 이미 유일적으로 정의된 학술용어들도 포함하여 매 용어들의 본질적의미를 정확히 해명하고 과학적으로 정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한다는것은 또한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과학적으로 정립된 학술용어들을 유일적으로 표기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통일적으로 장악된 학술용어들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기초우에서 그 본질적의미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학술용어표기를 정확히 하며 또 유일적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학술용어들을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정립하는것이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학술용어들을 유일적으로 표기하는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볼수 있다.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경계과학인 도서관정보학에서는 두 학문분야에서 리용되고있는 학술용어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학술용어들의 대량적인 증가로 하여 학술용어들의 표준화가 다른 학문분야들에 비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하는것은 우선 국가적범위에서 도서관정보학부문의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이 과학리론적인 토대우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도서관정보학부문에 종사하는 각급 기관들과 연구사들이 표준화된 학술용어들을 토대로 하여 공동연구,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학술교류와 토론회를 진행하면 학술적리해를 깊이할수 있으며 리론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보다 신속하게 풀

어나갈수 있다.

교육부문에서 하나의 학술용어를 여러가지로 표기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론리정연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킬수 없으며 학생들의 인식과 사고활동에서 혼란을 가져다주게 된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하는것은 또한 세계적인 도서관정보학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학술용어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문에서 세계적인 발전동향을 파악하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하는 사업은 단순히 현재 리용하고있는 학술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학술용어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사업까지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학술용어들을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정립하며 유일적으로 표기하는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는것이다.

도서관정보학부문의 학술용어표준화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표준화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선차적인 문제이다.

전국의 도, 시, 군마다에 꾸려진 도서관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도서관정보학에 종사하는 기관들과 인원들이 늘어나고있으며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결합이 더욱더 밀접해지고있는 현실은 표준화사업을 어느 한두단위의 사업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자면 도서관지도국, 도서관협회, 도서관학부문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이미 학술적으로 쓰이고있는 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 말로 다르게 표기됨으로써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데 혼돈을 줄수 있는 용어들에 대한 우리 말 표기를 유일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이다.

특히 도서관정보학부문에서 쓰이고있는 학술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을 편찬하는것은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의 관건적고리이다.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에는 학술용어들의 우리 말 표기와 함께 영어, 중어 등으로 표기를 주며 매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해설을 주어야 한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세계적인 도서관정보학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있는 용어들을 신속히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표기 및 정리하는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정보자원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를 리용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정보학의 새로운 용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있으며 이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받아들이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선 새롭게 등장하는 외래어학술용어들을 우리 말로 옮기는 사업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진행하는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외래어용어들이 학술적인 용어들이고 우리 말로 표기된것도 없으며 우리 말로 다듬기가 어렵다고 하여 외래어로 된

학술용어를 발음 그대로 마구 리용하는 것은 조선어리용에서 주체성이 부족한 표현이다.

외래어용어들을 우리 말로 옮기는 사업에서는 외래어용어들이 가지고있는 의미와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중한 우리 말 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외래어단어와 우리 말 단어를 1:1로 대응시켜 학술용어들로 표기하는 것은 적지 않은 경우 정확한 우리 말 학술용어들로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또한 이미 공고하게 굳어져 널리 쓰이고있는 용어들까지 다시 우리 말로 옮겨 학문연구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문화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례로 DVD(Digital Versatile Disk)를 조선말대역 그대로 《수자식다목적원판》이라고 하면 DVD와 다른 원판인 듯 한 인식을 줄 수 있다. 다른 실례로 《holography》는 이미 도서관정보학에서 《홀로그래피》(《홀로그래피 축소축적기술》)라는 우리 말로 굳어져 널리 쓰이고있으므로 구태여 《빛간섭3차원화상 재현》이라고 고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 말 표기에 외래어 학술용어가 가지고있는 학술적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말로 다듬을 때 해당 용어들의 학술적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로 하여 전문가적인 특성이 살아나지 않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실례로 《reference service》를 일부 도서들에서 《문답봉사》, 《상담봉사》라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reference service라는 학술용어가 포함하고있는 부분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학술적인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으면서도 전문가적특성이 살아나는 우리 말 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참고봉사》라고 할 수도 있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나가는 것이다.

정보자원의 리용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정보학부문의 새로운 학술용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있으며 이미 리용되어오던 학술용어들의 정의와 내용들도 새롭게 갱신되고있는 현실은 그에 맞게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진행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도서관정보학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 연구소, 단위들과 성원들의 합동연구, 공동연구, 연합토론회, 발표회 등을 비롯한 학술교류공간들을 최대한 리용하여 국가적규모에서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의 통일적인 리용을 적극 장려하고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도서관정보학부문의 학술용어표준화를 위한 연구조를 편성하고 표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용어표준화를 위한 연구조는 어느 한 기관에 단독으로 내올 수도 있고 여러 기관, 단위의 성원들을 망라한 종합연구조형식으로 내올 수도 있다. 이 연구조는 도서관정보학부문의 모든 기관, 단위, 성원들로부터 제기되는 학술용어들의 표준화를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함께 연구조성원들 자신이 세계도서관정보학발전으로부터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학술용어들을 표준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연구조에서 진행한 학술용어들의 표준화정형은 해당 전문가적인 심의들을 거쳐서 국가규격으로 확정배포한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표준화사업이 도서관정보학 및 연관된 다른 학문분야들의 발전과 밀접히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화사업은 표준화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서관정보학을 비롯한 연관된 학문분야들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의 표준화

사업은 우선 도서관정보학과 련관된 학문분야들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술용어들의 표준화사업은 학술용어들의 출현회수와 같은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난 시기의 도서관정보학의 발전정도를 시기별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이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문의 발전정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의 표준화사업은 또한 도서관정보학, 문헌학 등 학문분야들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문들호상간의 관계, 새로운 과학연구방법 및 이론들을 확립하는데 적극 리용되어야 한다.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

로 이 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다.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을 위해서는 그 담당자인 연구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정보학부문의 학술용어표준화사업은 두 학문의 경계학문이고 또 외래어를 우리 말로 표기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으로부터 도서관학과 정보학부문의 전문지식을 가지고있으며 영어, 중어를 비롯한 외국어실력이 높은 인원들로 연구력량을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학술용어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정립할수 있도록 학술도서들과 잡지들, 필요한 학술자료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도서관정보학부문 학술용어들의 표준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감으로써 도서관정보학의 과학화, 리론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